# 아버지는 단 둘뿐

## (요8:31~47)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는 단 둘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온 세상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아버지는 단 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한 분이시고, 나머지 한 아버지는 마귀 아버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던 또 얼마나 화려하고 고도의 문명을 꽃 피웠건, 아버지가 하나님아버지가 아니면 다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온순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도,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둘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육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 물거품처럼 없어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체입니다.
육체만큼이나 실체요,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들어있으면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이 알맹이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

다.
이 알맹이의 아버지가 둘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아버지가.
하나님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나머지 또 하나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 둘과 그들의 각각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 38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 한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거꾸로 되어있지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본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듣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은, 그 다음 40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다' 근데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말하는 대로 따라 하며 산다,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본 것을 말씀하신다, 들은 것을 행한다, 본 것 청각과 행동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고 사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아버지 닮은 딸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닮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는 둘뿐인데, 이 두 아버지에 대해서 각각, 자녀들이 물려받게 되는 유전인자는 이 육체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아버지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있고, 아버지 마귀의 유전인자가 들어있고, 말 속에 들어있고, 행동 속에 유전인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안으로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 죄라는 말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를 마귀로 둔 자들의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 유전인자, 아버지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딸인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 드린 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기에 그럴까요?
마귀가 오늘 거짓말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44절에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살인을 했는데도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거짓말에 인생을 걸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는 아버지이면서 절대로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귀가 마귀인 것은, 자기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망치는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먹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이끄시는 것과 자기가 자녀를 이끄는 것을 경쟁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내 자녀들을 더 잘 키워야지, 더 잘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아니지요.
마귀가 마귀 됨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거짓말도 진짜라고 믿는 그런 자기의 자녀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거짓말을 참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 뭐고, 마귀의 살인이 뭡니까?
자! 살인과 연관 지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다, 꼬드겨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왜 죽였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는데 어떻게 속임수가 통했냐 하면,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신 것은

마음의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걸 말했던 겁니다.
마음의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움으로, 채워서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니까 기쁘게 되고, 기쁘니까 행복할 수 있는 줄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죽은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죽은 것이 죽은 겁니다.
근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 몸이 살아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산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마음의 죽음과 삶을 얘기하셨는데, 마귀는 몸의 죽음과 삶으로 옮겨가버렸습니다.
몸이 살아 있는 한 죽는 게 아니라고 속여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이 죽는 것이 두려워 가지고, 이 몸이 죽는 걸 죽는 것으로 안 거에요.
흙에서 온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건 두려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옷 입고 있다가 옷 벗는 것과 똑같아요.
옷 벗으면서 벌벌 떠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마귀가 이걸 속여 버렸다는 거예요.
몸이 살아 있는 한, 산 것이고, 몸이 죽는 게 죽는 거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서, 이 몸이 죽은 것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몸이 사는 일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속여 놓고는, 이제 뭐라 그러느냐?
에덴 밖에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 안으로 가득히 모셔 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에덴 밖에서도 너희가 기쁠 수 있다,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럼 행복하냐? 어떻게 그럼 기쁠 수가 있냐? 에덴 밖에서 하나님 말고도 어떻게 기

쁠 수가 있냐?
그때 마귀가 한 말이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박 근혜 씨처럼 정치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최고야, 대권을 잡아야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 오복이 최고야!'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딱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머물면'이란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마귀의 말에 머물러 버렸어요.
돈이 최고라는 이 한 생각 때문에, 평생을 돈, 돈 하면서 사는 거고, 건강이 최고라는 이 한 생각 때문에, 평생을 감기라도 걸리면 벌벌 떨며 사는 겁니다.
평생을 온갖 모략과 술수를 다 써가면서 권력, 대권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형통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했고,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어디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느냐 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생기는 현상을 압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마음에 첫 번째 현실로 인간들이 느끼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줄을 다 압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한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잘 먹고 잘살아 보겠다는, 모든 산 아래에 있었던 야심과 꿈과 비전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망각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천국이 마음에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질 때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천국이라는 것을 막연~한 아지랑이와 같은 일로 다 뒤바꿔버립니다.
우선 지금은 돈 버는 일이 급하다, 우선 지금은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지금은 대권을 향하여 계획을 짜고 모략을 짜고 앞으로 전진 하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문제는, 유대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 안에 머물라'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진리가 뭡니까?
참으로 진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철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입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과 그 말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실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말로써 단어로써 입에 올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실제 존재하는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기다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최고인 돈을 갖게 해 주시고, 최고인 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해주시고, 최고인 벼슬자리를 갖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 최고인 돈을 위해서, 최고인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이 세상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얘기합니다.
최고인 하나님을 만나면 돈, 건강, 형통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미 기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럼 불러야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을 찾아, 건강을 찾아, 사업의 성공을 찾아, 예수를 부르면서 자녀의 형통을 찾아…'

그래서 선민이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말 안에 거하라'고 할 때, 이 '내 말'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산상수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러 주님이 오십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추측하고 상상하지 말고, 실제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찾아봐요.
열한 사도와 사도바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바울.
그럼 그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 게 틀림없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런데 그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가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 따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제외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사도바울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행한 모~든 말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얘기 빼 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꺼낸 말씀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존재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신 말씀인 십자가 사건에 사로잡히고 그 안에 머물게 될 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던 하나님,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아버지가 실제로 만나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이 '안다'는 말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게 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실제의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말로만 하던 하나님이 아닌, 그야말로 장기 알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한(漢)자가 쓰여 있어요. 그 한(漢)자가 뭐냐 하면 한나라 고조 유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진영에는 초(楚)자가 있지 않아요? 초(楚)자가 쓰여 있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항우를 말해요, 초나라 항우.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할 때, 장기 알을 쥐어서 여기저기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막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이 머물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로만 하던 하나님의 실제와 만나는 경험, 만나서 알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진리를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인, 정말 희디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성공문제, 독립문제, 나라문제, 가정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안에 머물러서 세상에 대해 우리가 죽은 자로 우리를 여기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로만 하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이 만나지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오래 사는 것이 좋다, 이 육체의 건강과 목숨을 어떡하던지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거짓말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할 때,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성공을 했거나 말거나, 내 마음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자유가 우리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체는 뭡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당신의 목숨을 다 희생하여서 해주신 십자가 말씀 안에 거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실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 복되고 복된 현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안에 거하므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거짓말인 마귀가 만들어낸

모든 가치 체계와 신념체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